

해방전 박승극의 창작활동과 그 특징

조 은 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민족이 낳은 재능있는 작가, 예술인들을 내세우고 자랑할줄 알아야 한다.》(《김정일선집》제16권 증보판 173페이지)

해방전 카프작가들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로 인한 악랄한 민족말살책동속에서도 민족의 념을 지키기 위한 진보적문학활동을 전개해나갔다.

박승극은 해방전 이름있는 소설가, 평론가였으며 카프의 주요활동가의 한사람이었다.

박승극은 경기도 수원군 양감면 정문리의 평범한 농민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출생하여 유년시절을 보낼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일제의 가혹한 정치적폭압의 대상으로 되어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모조리 빼앗기고 신음하고 있었으며 경제적락탈로 빈궁속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성장하면서 그는 점차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을 깨닫게 되었으며 반일정신이 싹트게 되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문학수업에 큰 뜻을 두고 그에 열중하였다.

그는 1928년 서울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에 건너가 도쿄대학에 입학하였으나 몇달후 사상관계로 출학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고국으로 돌아와 곧 1928년말에 카프에 가맹하였으며 이때부터 그의 본격적인 문예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는 카프에 가맹한 직후 1929년 6월호《조선지광》에《농민》이라는 첫 단편소설을 발표하고 정열적으로 작품을 창작발표하였다.

이 소설은 압담한 일제식민지통치밑에

서 기아와 빈궁으로 신음하는 조선농민들의 비참한 운명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이어 1930년 7월에 두번째 단편소설《재출발》을 창작발표하였다.

박승극은 문학활동의 첫 시기부터 소설창작과 함께 평론활동에 큰 힘을 넣었다.

그의 첫 문학평론은 1931년 3월《조선일보》에 발표된《최근의 문학평론》이다.

뒤이어《농민문학과 배포문제》(1931.10)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평론을 썼으나 일제총독부 경무국의 검열에 의해 전문삭제당하여 발표되지 못하였다.

그의 예리한 창작활동은 순탄한 속에서 진행될수 없었다.

그의 창작활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일제는 소작쟁의와 농민조합사건에 관여했다는 구실로 그를 체포구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3년간의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다.

출옥후 일제경찰의 로골적인 감시와 탄압, 심지어 반동문인들의 방해와 고소책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예활동은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출옥후 그는 파업투쟁의 선두에서 용감히 싸우며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는 녀성로동자의 형상을 창조한 단편소설《그 녀인》(1933)을 창작하였는데 소설에서 주인공의 형상은 곧 시련과 난관앞에 굴할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신심으로 충만되어있는 그의 고상한 정신세계의 반영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의연히 시사적인 문학평론과 립화, 김남천 등의 투항주의적경향을 론박한 시평, 해외문학과와 9인회의 순수문학경향을 폭로배격한 비평, 우리 말을 정리하고 교수할데 대한 평론과 우리 문학의 창작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관한 평론들을 써냈다.

1935년은 그의 문예활동에서 고조를 이룬 시기였다.

이해에 그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관한 논전을 벌리는 한편 비상한 노력으로 《평범한 이야기》(《중앙일보》연재, 1935.12)를 비롯하여 《풍진》(《신인문학》에 연재, 1935.4), 《공장생활》(《신조선》에 게재) 등 소설을 창작하면서 10여편의 평론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 그의 평론들은 사상미학적 경향성과 주장의 적극성에서 당시 문예평론들 가운데서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농민문학과 배포문제》, 《쏘베트문학계의 전망》과 같은 평론들이 일제의 검열탄압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평론들이 전문작제당하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해방전 박승극의 창작활동은 주목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박승극의 창작활동의 특징은 무엇보다 먼저 창작활동이 다방면적으로, 매우 정열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해방전 길지 않은 창작활동기간 수십편의 문예평론들과 10여편의 장, 중, 단편 소설들 그리고 여러편의 수필들을 썼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단편소설 《농민》(1929), 《그 녀인》(1933), 《평범한 이야기》(1935), 《어느 비오는 날의 이야기》(1939), 중편소설 《술》(1939), 장편소설 《희망》을, 평론으로서는 《사실주의 소론》(《조선중앙일보》1935.3), 《창작방법의 확립을 위하여》(《조선중앙일보》1935.12) 등을, 수필로서는 《불타는 불만》(1935.7), 《벗에게》(1935.12), 《〈시대와 문학〉에 대하여》, 《치악기행》(1938.1), 《사슴》(1941.2)을 들 수 있다.

그밖에도 그는 《중국녀류작가 정령에 대하여》(《조선문단》1935.5)와 같은 세계문단을 소개한 글도 썼다.

그의 창작활동은 매우 정열적으로 진

행되었다.

그가 얼마나 정열적으로 창작활동을 진행하였는가 하는 것은 1935년부터 1936년 중엽까지의 한해 남짓한 사이에 4 000매에 달하는 장편소설 《희망》을 집필하면서 동시에 20편이 넘는 평론을 썼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는 1933년 9월 2일-7일, 1940년 2월 24일-28일에는 매일, 1934년과 1935년에는 거의 매달이 다 싶이 잡지에 평론들을 창작발표하였다.

그는 수필 《〈시대와 문학〉에 대하여》에서 《...모든 일이 다 그런 것과 같이 문학과 정열은 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정열을 상실하면 글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열을 찾도록 발버둥쳐야 할 것입니다.》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가 민족의 수난기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지니고 불같은 창작활동을 벌렸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박승극의 창작활동의 특징은 다음으로 작품들에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그리면서 그들을 고통속에 몰아넣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투쟁정신을 두드러지게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박승극의 작품들은 창작발표된 권수에 있어서는 그리 많지 않지만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운명, 끝까지 싸우려는 그들의 강렬한 투쟁의식을 진실하면서도 보다 예리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해방전 진보적문학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한다.

실례로 중편소설 《술》에서 농민들의 투쟁의식은 김춘필과 그의 아들 김정중의 형상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다.

춘필은 자기를 《도적》으로 몰아 졸경을 치르게 한 장본인인 지주 홍국표와 끝까지 맞서 해본다.

그는 경찰서에서 나온 후 즉시 홍국표에게 가서 보복을 한다.

그는 그만두라고 말리는 마누라의 말에 《안여, 해볼테여. 어디까지던지 해볼테여. 어디까지던지 해볼테여. 그동안 손해난거나 받아내야지. 앵, 그놈때메 돈 손해보고 몸 뚫고 했으니 어디로 보던지간에 가만있을순 없어! 죄나 사실 있어 그런것처럼 병신구실하고 가만있어야 되겠어?》라고 반박하며 《난 죽는 한이 있어두 그냥은 참구 못있겠어!》하며 분연히 일어서서 홍국표에게 간다.

이렇게 하여 춘필은 면지주이며 일제식민지당국의 신임을 받는 친일유지 홍국표의 위신을 군중앞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자기 복수를 하고야만다.

마을의 평범한 농민이 자기 마을 지주이며 더구나 일제의 비호밑에 있는 친일본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맞받아 싸운다는것은 당시로서는 놀랍고도 장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의 아들 정중도 일제와 홍국표를 비롯한 친일본자들을 끝없이 미워하고 증오한다.

정중은 아버지가 억울한 루명을 쓰고 잡혀갔지만 투쟁을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가 또다시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에도 《어떻게 하든지 인민계몽사업은 계속 유지해나가야 될것이다.》고 생각하면서 변함없이 투쟁해나간다.

이렇게 정중은 강렬한 투쟁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난관앞에도 주저앉지 않고 투쟁해나가는 청년이다.

이와 같이 그의 작품들은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우리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운명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으며 농민들의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투쟁의식을 예리하게 반영하고있다.

박승극의 창작활동의 특징은 다음으로 작품들에 반일의식을 구현하고있는것이다.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문학작품에 반일민족의식을 구현하는것은 해방전 조선문학앞에 나선 기본과제의 하나였다.

그러나 일제식민지통치자들이 반일정신이 구현된 작품의 발표를 허용하지 않고있었던 조건에서 또 카프작가들의 활동을 압살하려고 온갖 방해와 중압을 가하고있었던 환경속에서 이러한 목표와 지향을 실현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한 속에서도 카프작가 박승극은 드팀없는 견결한 투지를 안고 일제식민지당국의 검열망을 뚫고 반일의식이 구현된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불타는 열정과 창조적탐구로 반일의식을 구현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는데 그의 작품들은 반일민족의식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구현한것으로 하여 해방전 진보적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실례로 단편소설 《평범한 이야기》는 일제의 간악한 민족문화말살책동, 민족말살정책에 대한 규탄배격의 사상을 보여주면서 반일의식을 주장하고있는 작품이다.

소설에서 반일의식은 우선 주인공 김성삼농민이 겪는 고통과 불행을 일제의 《색의장려》에 의한것으로 그려나간데서 표현되고있다.

《평범한 이야기》는 주인공 김성삼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속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대한 규탄배격의 사상감정을 구현하고있다.

주인공 성삼은 일제의 《색의장려》로 인하여 거듭되는 고통을 겪게 되며 나중에는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잃는 불행을 당하게 된다.

대동군 한말동네의 평범한 농민이 겪는 이 고통과 불행에 대한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바로 일제의 간악한 민족말살책동과 식민지폭압정책에 대한 규탄배격의 감정, 반일의식이 짙게 깔려있는것이다.

소설에서 반일의식은 또한 일제총독부가 내놓은 《농지령》과 《농촌진흥회》조직

을 반대하여 싸울 결의를 굳히는 한말동네 농민들의 형상을 통하여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성삼을 비롯한 한말동네 농민들의 단결해 싸우려는 신심은 투철하며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하는것이 아니라 단결하여 맞서 싸울 결의로 더더욱 굳어진다.

뿐만아니라 농민들은 반일투쟁의 지도층에 속했던 지방농민조합간부 림준식을 그리워하고 존경하며 그의 지도밑에 조직적인 투쟁에 결기해나선다.

소설에서는 김성삼, 백춘보, 박창성을 비롯한 한말동네 농민들이 파괴된 조직을 복구하고 일제의 《농촌진흥회》와 《농지령》을 반대하여 주동적이며 조직적인 투쟁을 벌려나가는것을 형상함으로써 반일의식을 두드러지게 구현하고있다.

소설에서 반일의식은 평범한 우리 농민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는 억압자, 착취자들을 일제의 앞잡이, 친일분자로 설정하고 형상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소설에서 부정인물들인 면사무소 면장과 주재소 순사부장 리해선, 면서기 최정환, 서상봉과 그의 아들 서병학 등은 농민들을 빈궁과 불행속에 몰아넣는 가혹무도한 착취자, 억압자들인 동시에 일제침략세력을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친일적성격의 소유자들로 형상되였다.

소설에서는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고 유린하는자들을 일제의 앞잡이로, 친일의 길에서 살길을 찾는 인간들로 형상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온갖 고통과 불행을 들썩우는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저주와 증오, 항거의식을 보여주고있다.

박승극의 해방전 창작활동은 우리 나라 진보적문학발전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박승극의 해방전 창작활동은 우리 나라의 진보적작가들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수난당하는 근로대중에게 힘을 주고 당대 현실에 대한 항거의식과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기 위하여 굴하지 않고 줄기찬 창작활동을 벌렸다는것을 보여준다.